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4주일(순교자 성월)
제32권 42호(나해) 2012-9-16

[묵상]



지상에서 이루신 일들을
중간평가 해보고 싶으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입 다물라고 하시니
이 대답도 틀렸나봅니다.
중간평가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왜 틀렸을까,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그리스도라는 감격에 찬 고백 안에
담기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십니다.
고난과 죽음,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없는
영터리 그리스도 선포를 금하십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리스도
허락하실까, 입 다물라고 하실까!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의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걸까!
최종평가의 결과도 실패일까?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평회 (장례사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제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제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제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제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 성은혜 실비아, 문밖티스타 수녀
주 일	(연) 이경용 야고보, 박영준 안토니오, 김풍길 바오로, 김령자 사카 & 김길령 요셉, 고준희 제임스, 신영열, 민희철 베드로, 김정백, 김이순, 김준자, 김들래
낮 미사	(생) 이윤조 글라라, 국세찬 세바스찬 & 국수지 안젤라, 윤헬렌, 김양금 안나, 민영준 마르코 & 민석준 토마스 가정, 송호창 요셉, 남가주 제35차 여성꾸르실로 참가자와 봉사자 (이진원 루시아, 윤두형 유스티나, 유수정 클라라, 한길선레 스킨라스타카, 엄혜은 도로테아), 박진숙 엘리스벳 반명자 테레사 & 김베드로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0,5-9

화답송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주님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이들의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어졌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죽음의 울가미가 나를 에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 주소서."○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 2독서 야고보서(James) 2,14-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복 음 마르코(Mark) 8,27-35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임당	218	218	190
봉헌	259	259	259
성체	246	246	296
파견	345	345	345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하느님 말씀과 성찬례

말씀과 성찬례 사이의 긴밀한 일치는 성경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고(요한6; 루카 24 참조) 교회의 교부들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의하여 재천명된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하신 생명의 빵에 대한 위대한 말씀을 생각해봅시다.(요한 6,22-69 참조).

이 말씀은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보며 말했던 이와(탈출 33,11 참조) 하느님을 보여 주신분(요한 1,18 참조) 사이의 대비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실상 빵에 관한 말씀은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광야의 만나로써 얻은 선물을 환기시키는데, 그 선물은 사실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인 토라입니다.(시편 119[118]; 잠언 9,5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 안에서 옛표징을 성취시키십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한 6,33-35). 여기에서 "올법은 인격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으로 양육되고, 참으로 '하늘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하신 말씀에서, 요한 복음서 서문이 더욱 심화됩니다.

서문에서 하느님의 로고스가 살이 되셨다면, 여기에서 그 살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어진 "빵"이 되십니다.(요한6,51 참조). "마시도록"(요한 6,53) 주어진 당신 피에 대한 말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신비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의 신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만나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파스카 신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살이 되신 하느님의 로고스이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루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과 빵을 쪼개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루카 24,13-35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 다음 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이 무너진 희망을 표현하는 말들을 들으시며, 길동무가 되시어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루카24,27)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두 제자는 그들의 삶에 이렇게 놀랍도록 가깝게 다가오는 이 여행자와 함께 성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일어난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실패로 보이지 않고, 성취이며 새로운 시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들도 아직 이 두 제자에게 충분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고난받는 야훼의 종과 십자가를 지는 나

오늘 제1독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고난받는 야훼의 종’ 이야기 네 개 가운데서 세 번째 이야기로 “그 종은 때려도 가만히 있고, 침을 뱉어도 꾀하지 않으며, 수염을 뽑아도 대들지 않고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종이 과연 누구일까?”하고 시대와 인물이 바뀔 때마다 비교해 왔지만 찾을 수 없었고 또한 “하느님이 사랑하는 종이라면 왜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받아야 하지?”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 버림을 받아 죽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의 고난 받는 “야훼의 종”(제1독서)을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눈을 훌륭히 여기셨지만, 예수님을 현세적 해결사로 보았던 베드로의 야심과 탐욕을 나무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끌려가서 얻어맞고, 가시관을 썼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운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일찍이 그들의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

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십자가는 실로 구원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프고, 억울하고, 서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거부한 사실 때문에 사탄이 됩니다. 즉, 하느님을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큰일을 하실 것입니다.

◆김윤근 베드로 신부 /

부산교구 성가정성당 주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예상치 못한 일은 행운입니다.

예고 없는 사고는 분명 불행입니다.

행운을 만나기도 했고 불행과도 맞닥뜨려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란 걸 알겠더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기도하는 것은

가진 것이 많거나 바라는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권순길 체칠리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23일(주일:본당의 날)

◆ 한가위 합동워킹미사

● 9월30일(주일) : 오전 7시30분, 오전 11시
분향예절이 있습니다.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일반주일미사로 봉헌합니다.)

◆ 제대회 총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6일) 낮미사후 강당
(점심을 함께 한후 지난 1년간 사업보고가 있습니다.)
● 문의 : 제대회장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 남가주 제35차 여성 꾸르실로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백삼위 본당에서 올해 남가주 제35차 여성 꾸르실로에 4명의 수강자와 1명의 봉사자가 참가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정 : 9월20일(목)~23일(주일), 엘 카멜로 피정의 집
파견예식 - 20일 오후 2시 성체조배식

● 수강자 : 이진원 루시아, 윤두형 유스티나, 유수정 클라라,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 봉사자 : 엄혜은 도로테아

◆ 백삼위 본당의 날 행사 안내

구역별 장기자랑대회(6구역)

● 일시 : 9월23일(주일) 오후 1시 30분 성전
● 시상 : 1등 \$300, 2등 \$200, 3등 \$100
● 친교나눔 : 오후 5시부터 친교장

행사안내지에 실릴 광고 후원

● 가족봉헌, 단체봉헌, 비즈니스 봉헌 선착순 10개(각 \$50)
● 수익금 용도 : 본당 행사용 조명기구 구입
● 문의 : 양엽회장 김영도 베드로 ☎(213)505-2941

◆ 예비자 교리(및 신자 재교육) 시작했습니다.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세례신자들 중에
교리를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백삼위에서 여는 남가주 연합기도회

● 일시 : 9월22일(토) 오후 7시 미사후
● 기도회 내용 : 강의, 찬미, 안수
● 강사 : 양창우 요셉 신부(성골롬반 외방선교회)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대상 : 모든 교우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본당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 성 빈첸시오 드폴 사제 기념일 행사

● 일시 : 9월26일(수) 저녁미사후(하루 앞당겼습니다.)
● 장소 : 강당,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박홍룡 요셉 본당 빈첸시오 회장 ☎(310)283-5879

◆ 안나회 효도관광

● 일시 : 10월30일(화)
● 장소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회비 : \$20(1인), \$30(부부, 가족2인 동반시)
● 신청 : 10월16일(화)까지, 55세이상 선착순 45명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개정된 메디케어 건강보험/올바른 장례준비 강의

● 일시 : 10월21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강사 : 이정훈 안셀모
● 문의 : 사회복지분과장 차인수 안드레아 ☎(310)256-6001

◆ 남가주 M.E. 30주년 기념책자 광고 받습니다.

● 책자에 게재할 광고 접수
● 문의 :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요셉회 교우간 인사 나누기 캠페인

요셉회에서 본당 교우들간에 "서로 인사합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16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주일학교(12학년 스파게티)
● 9월23일(본당의날) : 각구역별 친교점심 준비
주일학교(11학년 김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권대만 김관기 김광자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병철 김양금 김영길 김옥보 김재영	김주량 노찬술 노혜숙 박광자 김윤진 김재영	박완철 박인식 박종민 송기철 안종연 박완철 박인식	오신재 오일순 우영희 유정자 이귀란 이영미 이영희	이우성 이일길 정규숙 정혜영 주용순 이영희	최수복 최의수 최희숙 한장환 황윤재 황지영
	합계 : \$3,920					
미사헌금 : \$3,085	리사이클링 : \$87.22					
성전헌금	구자운 권대만 김관기 김광자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양금 김영길 김옥보 김윤진 김재영	김주량 노찬술 노혜숙 박광자 박완철 박인식	송기철 안종연 유정자 이귀란 이영미 이영희	이우성 정규숙 정혜영 최의수 한장환 황지영		
	합계 : \$2,527					
감사헌금 : 박이레네 성낙호	홈페이지광고후원 : \$150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 오픈 하우스

- 일정 : 9월30일 초등부(1~5학년), 10월14일 중등부(6~8학년), 10월21일 고등부(9~12학년)
- 시간 : 주일학생미사 후 10시30분~11시30분(수업시간중)
- 장소 : 각학년 교실
- 대상 : 주일학교 학부모, 적극적인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한국학교주최 '한가위 한마당'

- 일시 : 한가위 주일(9월30일) 오후 1시30분~3시
- 행사내용 : 전통악기(가야금, 장구, 해금, 단소) 공연 및 전통음식(송편, 떡, 과일, 식혜 등) 나누기
- 일반교우들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협찬 : 배론청년회
- 문의 : 한국학교 교장 김화경 스텔라 ☎(310)464-7490

주일학교 밴드 보컬 모집

- 대상 : 미사곡 및 찬양에 관심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남학생 환영)
- 문의 : 리노 윤 그레고리오 음악담당교사 ☎(310)613-3045

한국학교 2012/2013학년도 등록 받고있습니다.

- 등록시간 : 주일학생미사 · 11시미사 전후

노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노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정희 올리아 780-3787 9/8(토) 오후 6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오안젤라, 조마리아 408-7697 9/8(토) 오후 7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9/14(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야의모임 989-0366 9/7(금) 오후 6시 할리웃보울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9/9(주일) 오후 1시 성당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9/9(주일) 오후 1시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조준재 요셉 424-263-2493 9/2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9/18(화) 오전 11시 반미사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본당의 날 행사 대체 9/23(주일)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오세원 아타나시오 490-3358 9/8(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주대중 다니엘 818-640-3656 9/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고천용 377-6328 9/14(금) 오후 6시30분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9/15(토) 오후 7시 성당강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9/15(토) 오후 7시 성당강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영희가보라 프란체스카 617-3568 9/11(화) 오전 10시30분 반미사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남가주 소식

‘말씀의 초막절’ 축제미사에 초대합니다.

- 축제시작 : 오늘주일(16일) 오후 4시
- 개회미사 : 주례사제 김기현 알렉스 신부
- 평일초막예절 : 17일(월)~22일(토)
- 장소 : 미주성서모임센터(부에나파 6751 웨스턴 애비뉴)
- 문의 : ☎(714)521-1345 조마오로 수녀

봉사자 피정

- 일시 : 9월28일(금) 오후 4시~30일(주일) 오후 3시까지
- 주제 :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
- 강사 : 양창우 요셉 신부(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 대상 : 기초 성령세미나를 마친 모든 교우
- 참가비 : \$100 * 9월23일 신청마감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본당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제14회 미주가톨릭방송(KCBC) 기금마련 골프대회

- (구 김수환 추기경배 남가주 한인성당대항 골프대회)
- 일시 : 10월6일(토) 낮 12시, 샷건 플레이
- 장소 : 패사디나 브룩사이드 골프클럽
- 참가비 : \$100(그린피, 카트, 디너 포함)
- 문의(신청) : 미주가톨릭방송 (213)220-1245
경헨리 (213)500-3852

나를 부끄럽게 한 티종교 신자들

부산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아랍인으로 보이는 청년이 스마트폰을 들고 중얼중얼 거린다. 결눈질로 쳐다 보니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을 읽고 있었다. 나는 카톡(카카오톡)으로 답답을 하고 있다.

오래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여행했을 때다. 가게에서 물건을 고른 뒤 점원과 계산을 하기 직전이었다. 갑자기 점원이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알고 보니 기도시간이 됐으니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가게 밖으로 쫓겨났다. 가게 앞 서터가 내려지고 거리는 순식간에 우리나라 민방공 훈련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이슬람교도들은 물건을 하나 더 파는 것보다 하루 5번 올리는 기도(살라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네팔에서 오체투지(五體投地)로 사원을 향해 가는 티벳 불교 신자를 만났다. 머리·다리·팔·가슴·배 등 몸의 5곳을 땅에 던지듯 나아가는 그 사람의 걸음에는 거짓이 없었다. 몇 걸음 더 디딘 뒤 몸을 땅에 대도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건만 그는 꼭 한 걸음씩만 나아갔다. 머리를 얼마나 땅에 찍었던지 이마에는 피딱지와 피가 범벅이다. 이마를 한 번이라도 땅에 대지 않으면 상처가 덜할 터인데... 그들은 7~8개월 동안 2,000km를 오체투지로 간다. 그리고 티벳 라사의 포탈라 궁 앞에 도착해 감격의 절을 올리며 울음을 터뜨린다.

미국 석유왕 록펠러(1839~1937)는 철저한 십일조로 유명하다. 칠레교 신자였던 그는 회사에 십일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을 둘 정도였다.

친구 가운데 개신교 신자인 중소기업 사장이 있다. 그는 공장 땅값의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는 것도 계산해서 십일조를 하고 있었다. 그 친구는 기업을 하느님과 공동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게 매출보다 기도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이슬람교도들, 교판과 어리석음을 참회하기 위해 오체투지 한걸음도 거짓으로 내딛지 않는 티벳 불교 신자들, 나눔을 위해 십일조를 철저히 지키는 개신교 신자들...

가톨릭 신자로서 부족함이 많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점들이다. 타 종교신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계기가 되기를 기도한다.

◆김상진 요한 / 중앙일보 · JTBC 부산총국장

☞ 동료로부터 가톨릭은 미사 전례를 비롯한 모든 기도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대꾸조차 못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중에 원뜻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부정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꽤 있습니다. '형식적'이라는 말 또한 그렇게 저평가되는 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말은 '내용은 빠져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면서 '형식'마저 무시해버리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형식'의 반대가 '내용'입니다. 내용이 '담겨 있는 무엇'이라면, 형식은 그 무엇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빈 그릇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한 말처럼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입니다. 형식도 내용도 모두 그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담겨있는 것보다 담을 그릇에만 집착할 때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례나 기도의 내용은 외면하고 형식에만 젖어있을 때 형식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형식 그 자체마저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새가 좌우 두 날개로 날듯, 신앙생활 역시 형식과 내용의 두 날개를 필요로 합니다. 미사라는 형식이 없었다면, 성체성사의 내용 역시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 교수

☞ 성경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오면 십자가나 성물에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성당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믿게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예수님이나 성모님 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비판을 하곤 합니다. 하느님은 절대자이자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도 그분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만지고 보고 싶고, 감촉을 느끼고 싶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이는 것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은 바로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눈높이를 맞추고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눈높이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입니다. 가톨릭교회와 성사들과 많은 성물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룬 하느님의 눈높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일곱 가지 성사를 통해 물, 기름, 빵과 포도주같이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는 일상의 물질과 일상의 사건들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임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자신이 또한 이웃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그의 사랑의 드러내는 성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남산성당 부주임